

### 수행이란? 소박함 속 진실

청전 스님 '나는 걷는다 붓다와 함께'

붓다라는 존재는 과연 어디에 있는 걸까. 과연 붓다가 있긴 한 것인가.

누구나 한 번쯤은 풀을 만한 이런 궁금증의 해답은 그리 멀리 있지 않다. 청전 스님(57)은 "붓다라는 존재는 결국 우리 주변에서 만난 모든 인연"이라고 말한다.

달라이 라마의 제자로서 23년째 복인도 다람살라에서 수행중인 청전 스님은 사람 내음 불친 풍기는 '나는 걷는다 붓다와 함께'라는 책을 들고 한국을 방문했다.

1972년 성직자의 길로서 첫 번째 출가. 1977년 송광사로 두 번째 출가. 1988년 티베트 망명정부에 있는 인도의 다람살라까지 그 간의 여정에서 만난 인연들을 이 권의 책에 담백하게 풀어냈다.

스님은 이 책을 통해 "서로를 배려하는 따뜻한 가슴이 결국 이 세상의 희망임을 말해주고 싶었다"며 "수행이란 바로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스님에게 수행이라는 것은 그리 무겁거나 거대한 존재가 아니다. 스님의 수행은 언제나 민중들을 붓다로 섬기며, 그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과정일 뿐이다. 수행이라는 것이 얼마나 인간적인 일이고, 소박함 속에



청전 스님

서 묻어오는 진실인지를 스님은 이 책을 통해 말하고 있다.

그래서일까, 한때 신부에서 스님의 삶을 택한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는 청전 스님은 "나의 종교는 민중"이라고 답한다.

"수행이란 뭐가. 우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닌가. 똑같이 먹고 자겠다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공간을 꿈꾼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 할당은 대로, 드러내지 않고 노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평생 섬터, 여성터를 만들고 싶다."

스님은 "오랫동안 인연을 맺어온 한국의 거사님이 내신 숙제인데 '달라이 라마의 온화한 미소를 배우려는 것'이었다"며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한국으로 오면 가장 낮은 사람들과 '인간의 집'을 만들어 종교 간 화합을 위해 정진하는 성직자의 삶을 살고 싶다"고 말했다.

나는 걷는다 붓다와 함께 | 청전 스님 지음 | 휴(休) | 1만2000원

이은정 기자

## “불교는 나의 희망이자 절망”

홍사성 원장 칼럼집 '정법 천하를 기다리며' 출간

최근 나온 홍사성 유심아카데미 원장의 칼럼집 <정법 천하를 기다리며>는 사랑하기에 미워하며, 절망하는 것은 희망을 품고 있기 때문이라는 역설의 강력한 증거이다.

저자는 불교신론 주필, 불교평론 주간, 불교TV 제작국장, 불교방송 상무 등을 역임했다. 30여 년을 불교언론에 종사하며 역동의 한국불교사의 현장을 지켜보았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옮김에 실현하려는 한국불교를 사랑했고, 삶의 희망을 보았다. 그리고 미워하고, 깊게 절망했다.

저자는 책의 머리말 첫 문장을 “불교는 나의 사랑이자 미움이다. 희망이자 절망이다”고 썼다. 사랑과 미움, 희망과 절망은 아무에게나 허락되지 않는다. 한국 불교가 건강한 정법으로 바로세워져야 한다는 깊은 울컥은 염원 때문에 앞으로 도 사랑하고 미워하고, 희망하고 절망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사람만의 표현이다.

"기복주나 주술주의는 바라문교나 기독교와 같은 외도의 교리체계에 부합되는 신앙이다. 불교와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것이다. 그런 믿음을 부정하고 비판했던 사람이 부처님이었다. 그런데 지금 한국불교는 그 기복과 주술을 종교 행위의 전부로 삼고 있는 분위기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깨달음을 지향하는 종교' 같지만 사실은 아니다. 속을 들여다보면 부처님이 가르친 불교인지, 불교라는 이름의 외도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다...안타까운 것은 그런 행위의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인도불교가 겪었던 전철을 밟지 않는다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인도불교가 남긴 교훈

칼럼집의 제목을 <정법 천하를 기다리며>라며 진부하지만 큰 울림을 주도록 불인 이유를 알았다.

한국불교의 여러 행위가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언제부턴가 익숙해져서 정법인 양 행세해왔다. 불자들이 종교적 귀의심을 표시하는 최고의 행위인 불공(佛供)마저 북을 비는 가장 비불교적 의식으로 전락했으니 더 말할 무엇 하겠는가.

불공은 부처님께 음식이나 꽃, 향과 같은 공양물을 올리는 의식이다. 부처님 당시 제가불자들은 부처님과 비구들에게 공양을 올린 이유는 두 가지였다. 하나는



자비한 마음으로 공덕을 짓기 위해서였다. 또 하나는 존경과 귀의를 표시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던 불공이 의식화되면서 집전하는 사람이 생겼으며, 의식은 집전자에 의해 독점되었고 신비적인 요소가 가미되었다. 그리하여 불공은 처음의 뜻과는 달리 비불교적 종교의식으로 변질되었다. "그 결과 부처님은 팔자에도 없는 복(福) 장사꾼이 되고, 불교는 기복 종교의 대명사가 되고 말았다."

이밖에도 저자는 '스님은 사제가 아니다' '또 하나의 면죄부, 생전예수제' 등의 글을 통해 한국불교의 비불교성을 통렬히 후회한다. 그리고는 역사적 굴절과 변화를 거치기 이전의 초기불교에 주목할 것과 수행불교로의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수행불교란 정법에 근거한 명상수행을 통해 마음의 평화, 즉 열반의 성취를 이룩하는 것을 말한다. 불교의 종교적 역할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익숙한 것은 편안하지만, 흘러야 할 물이 흐름을 멈추는 그 때부터 썩기 시작하듯 독을 내뿜는다. 익숙한 것과의 결별이 있지 않고서는 '불교'라는 이름의 외도' 노릇만 지속할 뿐이다.

정법 천하를 기다리며  
홍사성 지음 | 우리출판사 | 1만2000원  
정성민 기자 woon1653@hanmail.net

### 쉽게 '원효'를 이해하다



힘이 부족하면 배를 빌려 저 언덕에 이르러  
박상주 지음  
한국학술정보(주)  
1만6000원

"간밤에 목이 타 물을 마셨는데 그 물이 너무도 달더이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달디 달던 그 물이 해골에 끈 물이었으니..."

원효의 내면과 그 속에 담긴 더 깊숙한 면모를 알아볼 수 있는 책이 발간됐다. 원효 사상의 본질을 보여주는 이 책은 원효의 심원을 탐독하기 위한 저자의 노력이 곳곳에서 묻어난다.

원효의 원문과 함께 해설을 실어 독자의 이해를 도우며, 끈구를 잡는 해석과 지나친 학술용어를 피해 원효의 말을 보다 친화적으로 풀어낼 수 있게 정리했다.

저자는 "삼국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는 이 시대에 원효의 일심사상을 바탕으로 한 화쟁사상이나 마음을 변화시키며, 그러한 변화가 인류의 미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올바른 눈과 귀로 원효의 수행이 깃든 문장을 몸소 실천하는 것이 불심에 다가가는 가장 좋은 길"이라며 "이 책은 여러 도반들의 홀로 가는 길에 한 모금의 청수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고 전한다.

이은정 기자

## “애들아, 절은 무서운 곳이 아니야”

박상용씨 '절에서 만나는 우리 문화' 펴내

어린 시절 소꿉과 수화여행의 단골코스를 꼽으라면 단연 사찰이 빠질 수 없다. 그만큼 사찰은 우리 역사와 문화를 잘 대변해주는 상징과 같은 존재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꼭 일주문이나 사천왕문을 지날 때쯤 낯설지 않은 소리가 이따금씩 들려올 때가 있다. 바로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어린 아이들의 신음과 비명소리다.

나무로 된 건물, 무서운 그림, 물로 만든 조각품, 번쩍거리는 불상 등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낯선 불교문화재를 본 어린아이들의 비명소리는 예외로 넘겨줘야 했다. 이제 그런 어린아이들의 비명소리를 찾아들게 해줄 책이 출간됐다.

<절에서 만나는 우리 문화>는 어려운

말로 쓰인 문화재 안내문이 아닌 사찰 건물과 불교조각, 회화 등을 어린아이와 일반 어른들까지도 쉽게 이해하도록 설명해 있다. 특히 불교와 불교 문화재들을 역사와 문화적 차원에서 접근해 교양으로도 알아두면 좋을 내용이 담겨 있어 보다 유익하다.

이 책의 저자 박상용은 "8년 동안 문화유산 해설사와 체험학습 선생님의 경험을 토대로 어린이들이 궁금해 하는 것, 재미있어 하는 것들을 꼬집어내기 위해 노력했다"며 "편안한 말투로 질 구석구석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담고 했다"고 말했다.

<절에서 만나는 우리 문화>는 사찰 구조를 학교에 비유하고, <도자기>의 작가



호연의 유머러스한 그림들로 꾸며 불교 문화에 대한 이해를 더욱 높여준다.

마법주문서 같은 안내책이 아닌, 쉽게 켜어진 <절에서 만나는 우리문화>를 통해 우리 문화유산과 역사를 보는 눈을 한 눈금 넓일 수 있다.

절에서 만나는 우리 문화 | 박상용 지음 · 호연 그림 | 낮은산 | 1만1000원  
이은정 기자

### ‘참 나’ 이렇게 찾으세요

진각 스님이 제안하는 '탐진치' 제거법

모든 수행자에게 탐진치는 수행의 기본이다. 진각 스님은 <탐진치>를 펴내 현대사회에서 탐진치를 제거하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

탐진치는 중생들이 가장 멀리하고 버려야 할 '독' 같은 존재지만, 이 세 가지를



버리는 방법은 그저 평범한 이야기일 수도 있다.

진각 스님은 <탐진치>를 통해 이 평범한 이야기가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네 삶에 큰 울림을 선사한다고 말한다. 평범한 참나의 순간으로 '참 나'를 다듬어 가는 기본공부에 좋은 교재다.

탐진치 | 진각 스님 지음 | 참글세상 | 1만1000원

이은정 기자

스스로 언제, 어디서나 쑥뚝과 지압을 간편하게



## 쑥뚝 지압봉 (특허 및 디자인 출원)

황동제질의 금도금 수제 명품! 풀 자극, 화상 걱정 없음...



일반형 99,000원

고급형(음각) 128,000원

고급형(양각) 148,000원

- 구성
- 쑥뚝 지압봉 (16.5cm)
- 휴대용봉 (2개입) + 쑥뚝 목 + 쑥 (30개입)
- 쑥 - 추가 별도구매 가능



- 이런 분께 사용하시면 아주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 수행 정진할 때 또는 경전 읽을 때 피로감을 느끼시는 분.
- 무릎 통증, 허리 통증이 있으신 분.
- 노안이 시작되었거나 진행중이신 분.
- 시력저하로 고민이신 분.
- 손발이 차신 분.
- 코가 자주 막혀 고생하시는 분

쑥뚝지압봉은 휴대가 간편하여 여행이나 출장시에도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며, 온가족이 함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선물용으로 구입하실 때는 이름을 새겨 드립니다.

국제품질경영시스템 ISO9001 / 14001인증업체  
다우정밀 서울시 중구 인정동 168-1  
☎ 02)2263-6853 / 011-348-6853

## 해성불원(海成佛院) 자비회(慈悲會)

삼보에 귀의 하옵고 부처님의 자비의 광명이 온누리에 비추어 중생들의 소원성취 이루도록 발원 하옵니다.

### 베트남, 중국(한족), 필리핀, 캄보디아, 네팔, 몽골 아가씨와 짝지어 주기 운동

- 결혼정보 초혼·재혼 -

중국(한족)아가씨 신랑 한 사람 당 신부 열 명의 선을 보고 일일이 궁합을 보고 궁합이 좋은 아가씨 채택 방문하여 부모들을 만나보고 시는 모습과 미진한 점등을 묻고 살펴서 완전 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 (스님의 직접 통역 하에)

- 의식점이 있으신 분 먼저 중국에 결혼한 신랑들과 연결하여 투명하게 연결도 하여 드립니다. (원하시는 분들께)
- 한족은 태국, 필리핀, 베트남 아가씨들과 똑같습니다. 우리말을 전혀 모르니까 (한국말을 나오면 가르쳐야 합니다)
- 자격: 직장이 있는 자, 전세방이라도 있는 자 (직장 확인서 1통, 갑근세 증명 1통, 전세 계약서 사본 1통)

왕복항공료, 호텔숙박비, 식대, 국제결혼 서류 작성비

신부 입국 모든 제반 일체를 책임있게 일괄 처리

국제결혼 서류대행  
1. 번역 3. 친지방문  
2. 공증 4. 국제취득신청  
상 담 010-9955-9093

◆ 담당: 만해 스님 합장 인천 광역시 남구 용현동 463-57 우.402-202 (전등사 내)  
주·야 핸드폰 010-5494-9595 / 전화 032)886-1661 / 070-8192-1661  
서울사무실: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7아자빌딩1505호(해피씨티 내)

장애를 갖고 있는 분

### 특별 결혼 정보

캄보디아=베트남=네팔



해성불원 자비회는 특별히 불자 가정 장애우님들께 봉사의 마음으로 해외에서 포교하시는 스님들과 짝지어 주기 운동을 전개 하였습니다.

### 자격조건=생활능력 있는분

### 불교가족 선남 선여 짝 지어 주기

불교가족 중 과년한 선남·선여들에 한함 재혼자 남·여(가족사상 자제회 기입 할 것)

신청 방법

1. 명함판 사진 1매
2. 자기 소개 이력서(상세히)
3. 직장자택유무

자비회에서는 궁합을 보아 좋은 커플을 소개 하오니 음력으로 년월일 시를 정확히 기재 전등사 또는 서울 사무소로 신청서류 보내세요.

담담스님 만 해 합장